

L.v. Beethoven
F. Schubert / F. Liszt
F. Chopin / F. Liszt
J. Strauss / A. Schulz-Evler
F. Schubert

피아니스트
탁영아
초청 독주회

Pure & Elegant Spring

2011. 4. 14(목) 저녁 8시 호임아트홀

주최 musicphil 호임아트홀

후원 Southeastern University  삼성생명 협찬  동강병원  城進産業株式會社  (주) 세 화

회원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공연문의 뮤직필 706-1481~2 www.musicphil.co.kr  1588-7890  인터파크 INT 1544-1555  1577-5266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전하는 건반 위의 봄빛 선율!

미국 Southeastern University 교수로, Southeastern Piano Trio의 멤버로, 솔리스트로,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뮤직필 초청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탁영아만의 색깔로 싱그러운 봄을 감미롭게 적실 이번 무대는 'Pure & Elegant Spring' 이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10-2>, 슈베르트 가곡들을 편곡한 <물레질하는 그레첸>, <세익스피어에 의한 세레나데>, <마왕>과 쇼팽의 곡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나의 기쁨>,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편곡한 솔츠-에블러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슈베르트의 작품958>가 연주된다.

3년 만에 고국에서 독주회를 갖는 피아니스트 탁영아의 우아함과 세련미, 그리고 열정의 조화가 기대된다.

“내가 본 그녀는 음악적인 면과 테크니적인 면 모두에 대단한 재능을 가졌으며, 훌륭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거장이 될 피아니스트” - Leon Fleisher (레온 플라이셔)

“완벽한 타이밍, 빛나는 소리, 그리고 음악의 전체적인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 세밀함을 잘 드러내는 연주” - Times-Picayune, New Orleans (피카유 타임즈)

“격정과 우아함의 감동적인 조화” - San Antonio Express-News (산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Winning combination of passion, imagination, and integrity” - New York Concert Review)라는 평을 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줄리어드 오케스트라와 링컨센터에서의 협연으로 뉴욕데뷔를 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연주한 바 있다. 또한 뉴욕 WQXR, 시카고WFMT, 클리블랜드 WCLV, 볼티모어 WBJC, 텍사스 KPAC, 그리고 한국 KBS 등의 라디오 방송과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the LOOP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9살 때 부산시향 협연을 시작으로 폴란드의 Filharmonia Pomorska, 루마니아의 Oltenia Philharmonic Orchestra, the Juilliard Symphony, the North Arkansas Symphony Orchestra,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울산시향, NEC Philharmonia, the Lansing Symphony Orchestra, Imperial Symphony Orchestra 등과 협연하였다. 뉴욕 링컨센터, 워싱턴 캐네디 센터, 보스턴 Jordan Hall, Music@Menlo, 캐나다의 Banff Arts Centre, 미시건 Wharton Center 에서의 연주를 비롯하여 시카고 Myra Hess Concert Series, Fayetteville Arts Festival, 뉴욕과 서울의 YAMAHA, 서울 세라믹팔레스트홀, 뉴욕 Trinity Wall Street Concert Series, South Nyack Recital Series 와 콜롬비아 대학 초청독주회 등에서 호평받은 바 있다. 탁영아는 또한 2006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독주회를 비롯, 독일 출신의 말롯퀸텟(Ma' a lot Quintet)과의 연주와 2009년 부산국제음악제에서의 라이징 스타 초청독주회로 주목받았다.

활발한 실내악 연주자이기도 한 그는 Robert Mann, Nicholas Mann, Bonnie Hampton, Alan Kay 등의 세계적인 연주자와 함께 연주한 바 있으며 뉴욕 링컨센터가 주최하는 'An Evening of Chamber Music' 시리즈와 명망 있는 실내악 페스티벌인 Ravinia Festival의 Steans Institute에서 2003년과 2005년에 연주하였다. 아울러 뉴욕 현대음악 시리즈 Sequenza 21 과 Piano Century에서 연주, 작곡가 Judith Zaimont의 초청으로 Zaimont의 작품 Wizards(2003)을 음반으로 제작함으로써 현대음악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해석으로 호평 받았다.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San Antonio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입상과 함께 고전음악을 가장 뛰어나게 연주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Best Performance of a Classical Work' 특별상을 받은 탁영아는 그 외에도 'International Corpus Christi Young Artists'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힐트 헤드 국제콩쿠르, 남미주리 국제콩쿠르, 하이다 헬만즈 국제콩쿠르, 풀브라이트 국제콩쿠르, 독일 에틀링겐 국제콩쿠르, 경남 국제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감각을 익힌 대형 피아니스트이다. 국내에서도 일찍이 삼익 콩쿠르 금상, 조선일보 콩쿠르 1위, 이화 경향 콩쿠르 2위, 월간음악 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재원이었다.

탁영아는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하여 줄리어드 음대를 L.&M. Burle 장학생으로 졸업하였으며, 그 후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총장 장학금 수혜자로 수학하였다(레온 플라이셔, 러셀 셔먼, 변화경, 마틴 케닌, 문용희, 이대욱, 김영호 교수 사사). 이후 피바디 음대 박사과정 중 피바디 음대 예비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09년 미국 Southeastern University에 Assistant Professor of Piano 교수로 공개 채용되어 전공 레슨 외에 학교를 대표하는 Southeastern Piano Trio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 속에서 음악이 나타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답고 맑으며 정갈함이 어우러진 각별한 감흥을 남긴 연주”(피아노 음악)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탁영아의 연주는 Albany Records에서 발매된 음반 Pure Colors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PROGRAM

L.v. Beethoven

Sonata No.6 in F Major, Op.10, No.2

F. Schubert / F. Liszt

Three Song Transcriptions

- Gretchen am Spinnrade
- Ständchen von Shakespeare
- Erlkönig

F. Chopin / F. Liszt

Nocturne "Meine Freuden"

J. Strauss / A. Schulz-Evler

Concert Arabesque on "By the Beautiful Blue Danube"

F. Schubert

Sonata No.19 in c minor, D. 958